

역내 해양협력 및 신뢰증진을 위한 한국 해군의 기여방안

박 영 준 *

〈목 차〉

- I. 문제의 제기
- II. 동아시아 주요 국가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현황
- III. 동아시아 해양분쟁의 가능성
- IV. 동아시아 해양 협력과 신뢰구축을 위한 한국 해군의 과제
- V. 맺는 말

I. 문제의 제기

동아시아 대륙을 에워싼 해양은 크게 보아 오호츠크해, 동해,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리고 그 외곽을 에워싸고 있는 서태평양 등의 해역으로 구성된다. 지중해 및 대서양 해역의 질서가 로마, 오스만 투르크,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등의 제국들에 의해 패권이 교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듯이¹⁾, 역사적으로 조망하

*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 본 논문은 제15회 함상토론회(2012. 6. 15)에서 발표한 것임

면 동아시아 해양의 질서에도 주도권의 교체가 발견된다. 청국(淸國)과 일본이 사실상의 쇄국정책을 실시하던 16세기 이후의 시기에는 이 해역에는 유럽에서 진출해 온 포르투갈 및 네덜란드에 의해 제해권이 장악되었다. 19세기 말 청일전쟁 이후에는 일본 제국주의가 이 해역의 제해권을 차지한 바 있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진방어 태세를 유지하던 미국에 의해 이 지역의 제해권이 사실상 장악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동아시아 해양질서에서 도서지역에 대한 영유권이나 해저 자원을 둘러싼 각국 간의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남중국해 해역에는 서사군도와 남사군도를 둘러싼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다. 동중국해 해역에서는 센카쿠(중국명 釣魚島)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 간의 심각한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동해에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고, 러시아와 일본 간에는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를 둘러싼 반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직접 동아시아 해양도서의 영유권 분쟁이나 해저자원 관련 갈등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의 입장을 지원하거나 해양항행의 자유를 거론하면서 중국과 대립하는 양상을 노정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한 통일을 이룩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동아시아 해양분쟁의 격화는 결코 바람직스런 상황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 및 통일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동맹국인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및 일본, 러시아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지원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원유를 비롯한 자원의 대부분을 동아시아 역내의 해양수송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구조상, 해양질서에서의 국가간 경쟁격화는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각국간 해양분쟁의 원만한 조정과 해결, 그리고 보다 평화로운 동아시아 해양질서 구축이 큰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선결조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고는 다음의 몇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아보려고 한다. 우선 동아시아 주요 해양국가들이 현재 어떠한 해양전략을 표방하고, 해군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는가. 이로 인해 동아시아 해양에서 전개되고 있는 분쟁의 양상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러한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고, 각국간 해양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과 메카니즘이 요구되는가. 그를 위한 한국 해군의 역할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1) George Modelski, *Long Cycles in World Politics* (Macmillan Press, 1987), pp.68-88.

II. 동아시아 주요 국가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현황

동아시아 해양질서에 도서 관할권이나 해저자원을 둘러싼 각국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전개되게 된 배경에는 몇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이 공포되고, 각국이 이를 비준하면서,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대륙붕 질서가 새롭게 정착되면서, 각국 간의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게 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동아시아 해양의 경우 불가피하게 각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350해리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게 된 대륙붕의 관할 구역이 중첩되면서, 그 경계를 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도서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도 격화되게 된 것이다.²⁾ 둘째, 냉전체제 하에는 이념을 달리하는 체제간 대립이 국가 상호간 영유권 분쟁의 격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냉전체제 해체 이후 이념 대립이 아닌 각국간 경제 이익, 국가이익 대립이 보다 첨예하게 나타난 것을 또한 들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각국들이 눈부신 경제성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군력을 증강시키게 되었고, 증강된 해군력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해양상의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가간의 해양분쟁이 나타나게 된 점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세 번째 측면, 즉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최근 해양전략과 그에 따른 해군력 증강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미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추세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사실상 전승국의 지위에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 처리 과정에서 태평양 지역에 대한 해군력 확장을 시도하지 않고, 일본에게 남태평양 도서에 대한 위임통치를 허용한 바 있었다. 그런데 이 조치가 일본 제국 해군의 팽창을 가져오고, 결국 태평양 전쟁 초기 일본 해군에 의해 진주만 기습을 당하는 경험을 겪게 된다. 이러한 쓰라린 경험 때문에 미국은 제2차 세계

2) 구민교, 「2010년대 한국 해양정책의 과제와 전망」EAI 국가안보패널보고서:2010년대 한국의외교 10대 과제 (EAI, 2012년 3월).

대전 종료 이후 대서양 지역은 물론, 태평양 지역에서의 추가적인 위협요인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병력의 전진배치 태세를 구축하고, 제3함대와 제7함대로 구성된 태평양함대도 설치하게 되었다.³⁾ 냉전체제의 종료, 그리고 이라크 및 아프간 전쟁의 종전에 따른 국방예산의 삭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방전개 태세와 직결된다는 깊은 의식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에도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안보위협요인이 발생할 경우 기존에 전방에 배치된 해공군 전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부채살처럼 퍼져있는 동맹국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위협에 대처하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특히 21세기 접어들어 이 해역에 대한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영향력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자, 미국은 중국이 소위 “반접근 지역거부(Anti-Access Area Denial)”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여 “공해전투(Air-Sea Battle)”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공해전투”의 개념은 2009년 9월,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주도로 게리 러프헤드 미 해군참모총장과 노튼 슈워츠 미 공군참모총장 등이 회합을 갖고 개발한 합동작전의 개념으로, 요컨대 미국의 행동의 자유를 위협하는 적대요인을 격퇴하고, 주요 지역에 대한 세력 투사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다른 공간에 배치되는 군사력, 특히 해양 및 항공의 전투력을 유기적,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⁴⁾ “공해전투”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고도의 정보 및 전자전 능력, 전방 지역에 배치된 미국 해공군 전력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방공체제 및 미사일 방어능력, 적대세력의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기 위한 전략적 중심타격 능력, 그리고 동맹 및 우방국가들과의 밀접한 연합작전 능력 등이 고루 요청된다.

최근에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력 증강 및 동맹국과의 연합작전태세 강화의 현상은, 위와 같은 “공해전투”의 개념이 구체화되고 있는 사례로 보여진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태평양 함대사령부는 제3함대(샌디에이고)와 제7함대(요코스카)로 구성되고, 보유전력은 6개 항모전투

3) John W. Dower, “Occupied Japan and the American Lake, 1945-1950” Edward Friedman and Mark Selden, *America's Asia: Dissenting Essays on Asian-American Relations* (New York: Random House, 1969), Hal M. Friedman, *Governing the American Lake: The U.S. Defense and Administration of the Pacific, 1945-1947* (East Lansing: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2007).

4) 이 개념은 2010년 2월에 발간된 미 국방성의 4년주기 국방태세 검토보고서(QDR)에서 표명되었다. 김재엽, 「미국의 공해전투(Air-Sea Battle):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전략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2년 3월), pp.190,197.

단, 함정 90여척, 잠수함 41척 등이다. 5) 미국의 국방비 삭감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태평양함대 사령부의 전력 및 주한미군, 주일미군의 전력 현황에는 아직 별다른 변화가 없다. 오히려 미국은 괌 지역의 전력을 증강하거나, 호주, 싱가포르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지원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2009년 5월 현재 B-52 전략폭격기 8대, F-15 전투기 18대 등이 배치되었던 괌의 앤더슨 미 공군기지는 향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4대, 차세대 공중급유기 12대, 전략폭격기 6대, F-22와 F-35 등 제5세대 전투기 48대 등이 추가로 배치될 계획이다. 6) 2011년 11월16일, 오바마 대통령은 오스트레일리아의 길러드 수상과 가진 회담에서, 2012년에 호주 북부의 다윈 기지에 미 해병대 250인을 우선 배치하고, 최종적으로 2500인의 해병대 병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7) 2011년 12월, 미국 해군참모총장 조나단 그리너트는 싱가포르에 최신 연안전투함을 주둔시킬 예정이고, 필리핀과 태국 등에는 대잠 초계기 배치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8) 나아가 미국은 인도네시아에도 F-16 전투기 판매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미 해군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모함에서 발전되는 무인항공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항모발진용 무인항공기 개발은 미 해군의 주도로 노드롭 그라망(Northrop Grumman)이 추진해 온 것인데, 2011년 2월, 지상에서 시험비행을 실시하였고, 2013년 이후에는 항모함상에서의 시험비행이 예정되어 있다. 미 해군은 이러한 신형 무기가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대폭 신장시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래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9)

이 뿐만이 아니라 미국은 이 지역 국가들과 다각적인 연합군사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연례적으로 키 리졸브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등을 실시해 오고 있고, 일본과도 매년 공동통합 지휘소훈련(CPX) 및 실병력 투입 연합훈련 등을 실시해 왔다. 10) 미국은 태국과는 코브라 골드 연

5) 2011년 10월1일, 필자가 미 태평양함대사령부 기획참모부 차장 Mr. William Wesley씨와 하와이 사령부에서 행한 인터뷰.

6) 『중앙일보』 2009년 5월14일자 기사 참조.

7) “Obama's Pacific power play: ‘We are here to stay’”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November 18, 2011.

8) 『중앙일보』 2011년 12월19일 및 『조선일보』 2011년 12월19일 기사 참조.

9) 항모발진용 무인항공기에 대한 미 제7함대 사령관 스코트 버스커크(Scott van Buskirk) 제독의 평가는 다음 기사를 참조. “U.S. developing sea-based drones to counter Chinese military advance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y 17, 2011.

합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고, 필리핀과도 바리카탕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해 왔다. 11) 여기에 더해 미국은 2009년에는 인도 및 일본을 포함한 말라바 해상훈련을 일본 서측 해역에서 실시한 바 있고, 2011년 7월에는 일본 및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함께 브루나이 해상에서 연합해군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외 동년 7월15일에는 베트남과 함께 다낭 해상에서 연합해군훈련을 실시하였다.¹²⁾ 이같은 훈련 양상을 보면, 미국은 국방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여러 군사전략서를 통해 표명된 것처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대두와 북한 핵개발 등의 위협요인에 대응하여, 군사력의 전진배치 태세를 유지하고, 역내 동맹 국가들과의 군사적 제휴를 강화하고 있다.

2. 중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추세

동북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팽창적인 해군전략을 수립하고, 활발하게 해군력 증강을 도모하고 있는 국가로 중국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중국 해군의 전력증강이나 활동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 부터이다. 1986년, 당시 유화청(劉華淸) 해군 제독은 중국 해군의 작전반경으로 황해,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포함하는 제1도련(島連, island chain)을 설정하고, 장차 해군력이 발전하게 되면 제2도련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종전에 표방해온 연안방어 전략에서 탈피하여 제1도련 해역 내에서의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근해방어(Near Sea Defense 또는 Offshore Defense) 해군전략으로 전환하였다.¹³⁾

중국 해군의 주력 구축함은 1950년대부터 운용해온 루다(旅大)급과 80년대에 개발된 루후급 등이 있었는데,¹⁴⁾ 근해방어 전략 표명 이후 90년대 중반에 루

10) 2010년 12월 자위대 3만4천명, 주일미군 1만명이 참가하여 실시된 자위대와 주일미군간의 연합훈련은 1986년 이래 10회째를 맞는 훈련이었다.

11) 1982년부터 실시해 온 코브라골드 훈련에는 일본 자위대도 참가해 왔고, 2010년 부터는 한국 병력도 참가하고 있다.

12) 『朝日新聞』, 2011년 7월16일 참조.

13)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1: Annual Report to Congress* (2011), pp.22-23, 58. 防衛省 防衛研究所 編, 『中國安全保障レポート2011』(防衛省防衛研究所, 2012), p.9.

14) 이하 중국 해군의 보유 함정에 대한 자세한 연혁은 防衛省防衛研究所 編 『中國安全保障レポート』(東京:防衛研究所, 2011), pp.30-32 참조.

하이(旅海)급이 개발되었고, 97년부터는 러시아에서 소브레메니급 구축함 2척이 신규 도입되었다.¹⁵⁾ 프리게이트함으로서는 1960년대 이후 건조된 첩두(成都)급과 장동(江東)급, 장후(江滬)급 등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90년대 이후 추가로 장웨이(江衛)급 프리게이트함이 개발되었다. 잠수함 전력으로서는 1950년대 소련에서 도입된 로미오급, 1960년대 개발된 밍(明)급, 1970년대 진수된 원자력잠수함(SSN) 한(漢)급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80년대에 샤(夏)급 전략미사일 잠수함(SSBN), 90년대에 새롭게 송(宋)급 잠수함을 배치하였고, 러시아로부터 4척의 킬로급 잠수함을 도입하였다.¹⁶⁾

이같이 근해방어전략을 표명한 이래 중국 해군은 구축함, 프리게이트함, 잠수함 등의 분야에 걸쳐 새로운 전력들을 증강하였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 해군의 전력은 아직 대양해군(blue water navy)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¹⁷⁾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정치가들과 해군 지휘관들에 의해 향후 중국 해군이 근해방어전략에서 벗어나 원해방어(Far Sea Defense)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미 국방성 문서들은 2004년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역사적 사명”을 공표한 이후 해양전략의 확대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⁸⁾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2007년 제17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근해(近海)종합작전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서서히 원해(遠海)방위형으로 전환하여 원해기동작전능력을 향상시켜, 국가의 영해와 해양권익을 지키고, 해상운수 및 에너지 자원의 전략 루트 안전을 확보할 것”을 보다 명확하게 지시하였다.¹⁹⁾ 후

15) 소브레메니급 구축함은 표준배수량 6600톤으로, 대함미사일을 장착하여 미국 항모와 이지스함을 파괴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다. David Shambaugh, *Modernizing China's Military: Progress, Problems, and Prospects* (Berkeley: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 p.267.

16) 한급 잠수함은 중국 독자의 핵추진 잠수함이나, 소음이 많아 미국의 로스엔젤레스급이나 일본의 하루시오 및 오야시오급에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평가되었다. 샤급 잠수함은 배수량 6500톤 규모로 12기의 주랑-1(JL-1)을 탑재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오하이오급 전략잠수함이나 일본의 오야시오급 잠수함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되었다. 이에 비해 송급 잠수함은 크루즈 미사일이 발사 가능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킬로급 잠수함도 정숙성이 뛰어나다고 평가되고 있다. David Shambaugh, 앞의 책, pp.,271-273.

17) 중국 군사문제에 관한 정평있는 연구자인 데이비드 샹보는 2004년에 발간한 저서에서 중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 가운데 불과 수척 만이 대양해군의 능력을 갖추었을 뿐, 대부분은 brown water, green water의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David Shambaugh, 앞의 책, p. 266 참조.

18)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1: Annual Report to Congress* (2011), p.39.

19) 防衛省 防衛研究所 編, 『中國安全保障レポート2011』(防衛省防衛研究所,2012), p.11에서 재인용.

진타오 주석의 연설을 전후하여 중국 해군 내외에서 원해방어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논의들이 이어졌다. 2009년 4월, 우승리 해군사령관은 원해기동능력과 전략적 투사능력의 건설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였다.²⁰⁾ 2011년에 발간된 중국의 『국방백서 2010』은 해군의 근해방어전략 임무를 재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원해에서의 작전능력을 개선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²¹⁾ 일부 퇴역 제독들은 중국이 원양해군기지를 보유해야 한다고도 주장하였다. 물론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원해방어” 전략으로의 전환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과 주요 언론에서는 중국 해양전략이 근해방어에서 원해방어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²²⁾ 이러한 관찰은 2000년대 들어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해군력 건설 현황, 그리고 해군활동의 확대 등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표 1〉 2000년대 중국의 해군전력 보유현황²³⁾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구축함 (DD)	루다 I	13	13	13	12	12	12	11	10	10	10
	루다 II	2	2	2	2	1	1	1			
	루다 III	1	1	1	2	4	4	4	4	4	4
	루후	2	2	2	2	2	2	2	2	2	2
	소베르메니	2	2	2	2	2	3	3	4	4	4
	루하이	1	1	1	1	1	1	1	1	1	1
	루조우						1	1	1	2	2
	루양						2	2	2	2	2
	루양 II						2	2	2	2	2

20) 防衛省 防衛研究所 編, 『中國安全保障レポート2011』(防衛省防衛研究所, 2012), p.21에서 재인용.
 21)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1: Annual Report to Congress* (2011), p.61에서 재인용. 미 국방성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원해방어에 대한 중국 내의 언급은 2004년부터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22) 미국 Naval War College 교수인 Nan Li 박사가 2010년 11월19일, 보스턴대학 세미나에서 발표한 Nan Li, "China's Evolving Naval Strategy" (2010.11.19.) 및 Edward Wong, "Chinese Military Seeks to Expand Its Naval Power: A Rapid Buildup is Seen", *The New York Times* 4.24, 2010 등을 참조.
 23) 김종형, 「대안적 분석모형에 의한 탈냉전 이후 동북아 재래식 전력지수 평가: 1991-2010 해군군력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군사전략전공 석사학위 논문, 2011), p.93에서 재인용.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호위함 (FF)	장후 I	27	27	27	27	27	27	27	19	12	12
	장후 II	1	1	1	1	1	1	1	1	7	7
	장후 III	2	2	2	2	2	2	2	2	3	3
	장후 IV	1	1	1	1	1	1	1	1	1	1
	장후 V								6	6	6
	장카이 I						2	2	2	2	2
	장카이 II									4	6
	장웨이 I	4	4	4	4	4	4	4	4	4	4
	장웨이 II	7	8	8	8	8	10	10	10	10	10
잠수함 (SS)	한	5	5	5	4	4	4	4	4	4	3
	로미오 (개량형, SSG)	1	1	1	1	1	1	1	1		
	로미오	31	31	21	21	21	15	7	7		
	밍	20	21	22	20	20	20	19	19	19	19
	킬로	4	4	4	4	5	9	12	12	12	12
	송	2	3	3	8	9	10	13	13	13	13
	위안					1	1	1	1	2	4
	상							1	2	2	2
총합	126	129	120	122	126	135	132	130	128	131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01-2010; Jane's Fighting Ships 2001-2010. 참고하여 재구성.

〈표 1〉은 2000년대 이후 중국 해군의 전력 증강 현황을 도시한 것이다. 이를 보면 중국 해군은 2006년 이후 루조우급 및 루양급 구축함을 각각 2척 및 4척 보유하기 시작하였고, 장카이급 호위함도 전력화했음을 알 수 있다.²⁴⁾ 특히 2000년대 이후 잠수함 전력의 증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04년 진수된 위안(元)급 잠수함 및 상(商)급 원자력 잠수함은 각각 사정거리 40km의 순항미사일 YJ-82를 탑재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2004년 탄도

24) 루양급 구축함에는 사정거리 280km의 대함미사일 YJ-62가, 루조우급에는 사정거리 150km의 SAM-SA-N-20 및 사정거리 160km의 대함미사일 YJ-83이 각각 탑재되어 있다. 防衛省 防衛研究所 編『中國安全保障レポート』(東京:防衛研究所,2011),p.31.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원자력잠수함(SSBN) 진(晉)급 잠수함을 진수시켰는데, 이 잠수함에는 사정거리 8000km 이상의 SLBM 쥐랑 2(JL-2)가 탑재되었다.²⁵⁾ 2001년 시점의 잠수함 구성과 비교해 보면 진급 전략잠수함, 상(商)급 전술잠수함, 위안(Yuan)급 잠수함 등이 새롭게 취역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1〉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중국은 1998년 우크라이나에서 구입한 항모를 개조하여, 항모 스랑으로 탈바꿈시켰고, 함재기의 이착륙 훈련을 병행하면서, 전력화를 서두르고 있다. 또한 2011년 6월에도 청(淸)급 디젤추진형 잠수함을 실전배치하였다. 이 잠수함에는 사정거리 8000km의 쥐랑 2 미사일 6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⁶⁾

중국은 이같이 원해방어 전략으로의 변환 속에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면서, 특히 해군력을 운용한 군사력의 원거리 투사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 해군 함정들은 제1도련선에 해당하는 오키나와와 미야코 사이의 공해, 혹은 제2도련선에 해당하는 남중국해와 필리핀선을 잇는 해역을 넘어 서태평양상에 전개하여 수시로 군사훈련을 행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청진항 부두 사용권을 받아내었고, 2011년 8월에는 해군 함정들이 원산항을 친선방문하기도 하였다.²⁷⁾ 중국은 파키스탄, 미얀마, 스리랑카 등과 협정을 맺어 이들 국가들의 해군기지 건설을 담당하거나, 경제원조를 행하면서, 이들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²⁸⁾ 뿐만 아니라 중국 해군함정은 2009년 이후 소말리아에 파견되어 해적퇴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0년 8월부터는 병월선을 아시아, 아프리카 해역에 파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 및 해양에서의 영향권 확대 움직임에 대하여 미국 일각에서는 중국이 반접근/지역거부(anti access/area denial, A2AD)의 목표를 갖고 미국 항모집단이 아시아 본토에 접근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²⁹⁾

25) 防衛省防衛研究所 編『中國安全保障レポート』(東京:防衛研究所,2011),p.30.

26) 『중앙일보』 2011년 6월29일. 미국은 중국의 핵추진 잠수함 획득과 항모 보유 시도를 대양해군으로서의 전투능력을 갖추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1: Annual Report to Congress* (2011),p.33.

27) 『朝日新聞』2011년 11월6일 및 『중앙일보』2011년 8월5일 참조.

28) Edward Wong, "Chinese Military Seeks to Expand Its Naval Power:A Rapid Buildup is Seen", *The New York Times* April 24, 2010.

29) Robert D.Kaplan, "Lost in the Pacific: Asia Rising"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September 22-26,2007.

3. 일본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추세

일본은 헌법 제9조 1항에서 국가정책수단으로서 교전권을 포기한다고 하였고, 동조 제2항에서는 육해공군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1954년 자위대와 방위청이 창설된 이후에는 실제 존재하는 군대로서의 자위대를 헌법상의 정신과 애써 부합시키기 위하여, “전수방위(exclusive defense)의 원칙”, “공격용 무기 비보유의 원칙”, “기반적 방위력”의 개념,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 “비핵 3원칙” 등의 특수한 규범을 표방해 왔다. 이 때문에 해상자위대도 “공격용 무기 비보유”의 원칙에 따라 항공모함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표방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전력은 세계 정상급 해군과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2000년대 초반 일본의 해상자위대 전력을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등 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한 한 연구는, 해상자위대가 주요 수상함정 숫자와 총 배수량 측면에서는 세계 3위권이고, 함대 방공능력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권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전체적으로는 일본 해상자위대는 미국에 이어 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라고 평가되었다.³⁰⁾ 이후에도 일본의 해상자위대 군사력은 지속적으로 증강되었다. <표2>는 2000년대 해상자위대 전력의 증강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표 2>를 보면 2000년대 이후에도 일본은 배수량 7700톤급의 아타고급 이지스함 2척을 신규 보유하면서, 기존에 보유하던 콩고급 이지스함 4척에 더해 총 6척의 이지스구축함을 보유하게 되었다. 일본의 이지스함은 미국에서 획득한 SM-3 요격미사일 (Standard Missile -3 Block A)을 탑재하여 미사일 방어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또한 이 표에는 나타나질 않지만, 해상자위대는 휴가와 이세 등 배수량 1만3500톤급의 헬기탐재호위함(DDH) 2척을 취역시켰고, 향후에도 1만9천톤급의 DDH 2척을 추가 건조할 계획으로 있다.³¹⁾ 잠수함 전력에 관해서는 <표2>에 나와있는 것처럼, 구형 유우시오급 잠수함이 도태되고, 신형 오야시오급 잠수함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방위계획대강 2010』에서 표

30) Jennifer M. Lind, “Pacifism or Passing the Buck?: Testing Theories of Japanese Security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 Vol.29, No.1 (Summer 2004), pp.92-121.

31) Christopher W. Hughes, *Japan's Remilitarization* (London: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09), pp.45-46. 1만9500톤급 헬기탐재호위함 건조 계획에 대해서는 『朝日新聞』 2011년 9월16일 기사 참조.

명된 것처럼, 총 16척의 잠수함 전력을 향후 5년에 걸쳐 총 22척 태세로 늘릴 계획이다. 이들 잠수함 전력은, 소위 “동적 방위력”의 핵심 전력을 구성하면서, 중국 해군의 양적 증가와 활동 반경 확대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상자위대는 기존에 보유한 80여기의 대잠 초계기 P-3기를 대체할 독자적 대잠초계기를 개발하고 있다. 신형 대잠초계기의 항속거리는 8,000km에 달해 남중국해 전역에 대한 초계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2000년대 일본의 해군전력 보유현황³²⁾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구축함 (DD)	하타카제	2	2	2	2	2	2	2	2	2	2
	다키카제	3	3	3	3	3	3	3	2	1	1
	다카나미			2	4	4	5	5	5	5	5
	콩고	4	4	4	4	4	4	4	4	4	4
	아타고								1	2	2
	무라사메	7	9	9	9	9	9	9	9	9	9
	시라네	2	2	2	2	2	2	2	2	2	2
	하루나	2	2	2	2	2	2	2	2	2	2
	아사기리	8	8	8	6	6	6	6	6	6	6
	하스유키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다카스키	2	2	1	1						
야마구모	1	1	1	1	1	1					
호위함 (FF)	유바리	2	2	2	2	2	2	2	2	2	2
	이시카리	1	1	1	1	1	1	1	1		
	치쿠고	3	1								
	아부쿠마	6	6	6	6	6	6	6	6	6	6
잠수함 (SS)	하루시오	7	7	7	7	7	7	7	7	7	7
	유우시오	6	6	5	4	3	1	1			
	오야시오	4	5	6	7	8	9	10	11	11	11
	소류									1	1
총합		71	72	72	72	71	71	71	71	71	71

*출처 : IISS, *The Military Balance* 2001-2010; Jane's Information Group, *Jane's Fighting Ships* 2001-2010. 참고하여 재구성.

32) 김종형, 앞의 논문, p.100에서 인용.

이상과 같은 해상자위대의 전력 증강 추세를 볼 때, 일본은 여전히 전수방위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원양에 세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³³⁾ 이미 해상자위대는 미국의 이라크전쟁 및 아프간 전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도양 해역에 파견되어 급유활동을 실시했으며, 2009년 이후에는 소말리아 해역에 함정 2척을 교대로 파견하여 해적퇴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 및 호주와의 연합해군훈련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고, 한국 해군과의 연합훈련 확대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³⁴⁾

4. 러시아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추세

냉전기의 소련 해군은 고르쉬코프 제독의 비전에 따라 대양해군으로 성장하며, 한때 미국 해군에 필적하는 전력을 갖추었다.³⁵⁾ 그러나 냉전체제의 붕괴와 국내적 경제난이 작용하면서, 탈냉전기의 러시아 해군은 전성기의 소련 해군과 비교하여 1/4 수준으로 전력이 감소되었다고 평가된다. 2007년 시점에서 러시아의 해군병력은 14만 6천명으로 1985년 시점의 50여만명에 비해 1/4 수준으로 감소되었으며, 잠수함 전력도 65척으로 1985년 시점의 400여척 규모에 비해 격감된 것이다.³⁶⁾ 푸틴 대통령 시기에도 러시아의 강국 부상 비전은 제시되었지만, 해군력은 대양해군을 지향하기 보다는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역할 정도에 그쳤었다.

그런데 러시아의 경제부흥이 궤도에 올라가고, 2008년 이후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집권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는 보다 적극적인 해양전략을 모색하고, 이에 따라 활발한 해군력 증강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2010년 러시아 국방성은 교통성과 공동으로 국가해양정책(National Maritime Policy)을 발간하였다.

33) 이같은 평가는 Christopher W. Hughes, op.cit., p.51 참조.

34) Yoji Koda, "The Emerging Republic of Korea Navy: A Japanese Perspective", *Naval War College Review*, vol.63, no.2 (spring 2010). 필자 Admiral Koda 는 해상자위대 자위함대 사령관을 역임하였다. 코다 제독은 다른 연구를 통해서도 중국 해군의 부상에 대응하여 한미일 해군협력 강화를 요청하였고, 한국 해군의 작전 영역도 서태평양 및 남중국해 해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Yoji Koda, (VAdm JMSDF Senior Fellow, Asia Center, Harvard University), "Japanese Perspective on PRC's rise as a Naval Power : Role of the USA, Japan and the ROK for our future" (2011년 7월6일 한국전략문제연구원(KRIS) 주최 국제세미나의 발표문.

35) 이재훈, 『소련군사정책, 1917-1991』(국방군사연구소, 1997), p.440.

36) Captain Thomas R. Fedyszyn(Retired), "Renaissance of the Russian Navy?" U.S.Naval Institute (2012.2.29.).

이 문서에서 러시아 정부는 자국의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세계해양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이며, 그 가운데 해군의 역할은 역제를 통한 주권 보호에 있으며, 나아가 해군의 평화유지활동, 인도주의적 임무, 자원 탐사, 해양의 자원확보 활동도 활발하게 실시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지역별로는 북극해 해역의 배타적 경제 수역 개발과 대륙붕에 대한 접근능력을 강조했으며, 태평양 해역에서는 쿠릴 열도의 연안 항구에 대한 인프라 발전을 역점 사업으로 강조하였다.³⁷⁾

이같은 해양전략 공표를 전후로 해군전력을 증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 졌다. 2008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태평양과 북해 지역의 해상작전을 위해 항공모함 5-6척의 건조 계획을 발표하였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항모 쿠즈네소프는 지중해 배치를 결정하였다. 이같은 대규모 항모 건조계획 구현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러시아는 신형 잠수함이나 구축함 획득에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2007년에 2100톤급 호위함 스테레그쉬취(Steregushchiy)를 진수시켰고, 향후에도 동급 호위함을 10-20척 건조하여 연안 순찰임무에 투입할 예정이다. 2009년에는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 유리 돌고루키(Yuri Dolgorykiy)를 취역시켰으며, 2017년까지 동급 잠수함을 8척 추가 건조할 계획이다. 배수량 2만4천톤에 달하고, 수중발사 탄도미사일(SLBM) 블라바를 12기 탑재할 수 있는 유리 돌고루키는 2011년 태평양함대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⁸⁾ 2010년에는 핵추진 유도미사일 잠수함(SSGN) 세베로드빈스크((Severodvinsk)를 취역시켰다. 러시아는 향후에도 동급 잠수함을 10척 추가 건조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고르쉬코프급 4000톤 규모의 호위함을 취역하였고, 북극해 항로 개발 및 유지를 위해 쇄빙선 6척을 건조하고 있다. 2010년 러시아는 프랑스로부터 헬기탑재 공격함 미스트랄 4척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 함정은 상륙작전 등에 유용하게 운용할 수 있으며, 러시아 해군사령관 블라디미르 비소츠키는 미스트랄함이 있으면 그루지아 전쟁 같은 작전을 보다 단시간 내에 수행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하였다.³⁹⁾

전력증강을 바탕으로 러시아 해군은 주변 국가와의 연합작전이나 해외파견에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2012년 4월, 러시아 태평양 함대에 소속된 순양함과

37) Captain Thomas R. Fedyszyn(Retired), "Renaissance of the Russian Navy?" U.S. Naval Institute (2012.2.29.).

38) 『조선일보』 2011년 9월9일.

39) 이 때문에 발틱연안 국가들은 프랑스의 대러 미스트랄 판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Doreen Carvajal, "French Deal To Sell Ships To Russians Is Criticized" *New York Times*, December, 29, 2010.

구축함 등 6척의 함정이 중국 칭다오에 도착하여 중국 북해함대와 연합해군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의 주된 내용은 방공 및 대잠 훈련, 제해권 확보훈련, 해적소탕훈련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⁴⁰⁾ 향후에도 러시아 해군은 국방비 가운데 25% 내외를 해군력 증강 및 운용에 배분하면서, 지속적으로 해군력 육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5. 여타 국가들의 해군력 증강 추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외에도 동아시아 해역에 면한 국가들이 최근 해군력 증강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2002년에 최초로 잠수함 2척을 계약한 데 이어 해군 전력을 늘리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잠수함 6척 체제에 더해 미국으로부터 연안전투함도 획득하려고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24년까지 잠수함 12척 체제 구축을 목표로 러시아 및 한국과 구입을 타진하고 있으며, 베트남도 러시아제 킬로그급 잠수함 6척을 구입 추진하고 있다.⁴¹⁾ 비단 동남아 지역 국가들 뿐 아니라 이 해역과 근접한 오스트레일리아 및 인도도 해군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2009년에 대규모 군비증강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 오스트레일리아는 금후 20년간 중국이 아시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과 공군 위주의 군사력을 증강할 필요가 있고, 특히 향후 20년간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12척 체제로 배증할 것을 공표하였다. 인도도 2010년에 러시아로부터 항모 1척을 인도받기로 합의하였고, 이외에도 2014년을 목표로 국산 항모 건조를 추진 중이다. 그 외에도 러시아 등으로부터 원자력 잠수함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에 있다.⁴²⁾

40) 『조선일보』 2012년 4월18일.

41) 『朝日新聞』2009년 7월31일.

42) 오스트레일리아 및 인도의 해군 함정 구입 계획에 관해서는 『朝日新聞』2009년 5월4일 및 2010년 3월13일 참조.

Ⅲ. 동아시아 해양분쟁의 가능성

각국의 적극적인 해양전략 표명과 해군력 증강에 병행하여 동아시아 해양질서 내에는 도서관할권이나 해저자원개발 등을 둘러싸고 각국간 주도권 경쟁, 해군력 경쟁의 양상이 노정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리고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나누어 이 양상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동중국해 해양분쟁 가능성

동중국해는 일본 본토와 타이완 사이에 놓여있는 해역을 말한다. 이 해역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존재한다. 유엔해양법협약 성립 이후 일본과 중국은 각각 이를 비준하였지만, 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는 서로 중첩되어 그 경계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위치한 해저자원개발을 둘러싸고, 양국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釣魚島)에 대해서도 양국은 물리설 수 없는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앞서 살핀 해양전략 적극화와 해군력 증강 이외에도 법제적으로, 제도적으로 중국 인근 해양에 대한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중국 국가해양국(한국 해양경비대, 일본 해상보안청에 해당)은 2020년까지 현재 260척을 보유하고 있는 감시선을 520척으로 배증하고, 항공기도 9기에서 16기로, 인원을 9천명에서 1만5천명으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⁴³⁾ 또한 2009년 6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해양도서(海島)보호법안을 제정하여, 중국 근해에 산재한 1만개 이상 소규모 도서들과 그에 관련된 해양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⁴⁴⁾

이에 대해 일본도 해상보안청(Japan Coast Guard) 예하의 순시선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활동범위도 확대시키면서 대응하고 있다. 해상보안청은 6500톤급 순시선 시키시마를 포함하여, 1000톤급 이상 함선 55척을 보유하면서, 일본의 배

43) 『朝日新聞』2011년 6월18일.

44) 『朝日新聞』2011년 6월25일.

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감시와 보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⁴⁵⁾ 또한 일본도 2007년 해양기본법을 제정하고, 2008년 해양기본계획을 책정하면서, 해양의 안전보장 확보와 원거리 도서 개발에 대한 기본방침 등을 표명한 바 있다.⁴⁶⁾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일본경단련)도 2010년에 공표한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원거리 도서에 대한 주권 확보 등 적극적인 해양정책을 전개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⁴⁷⁾

그렇다면 중국 해군은 동중국해 해역에서 어떠한 군사활동을 전개하면서, 이 해역에 대한 중국의 해양권익을 확보하려 하고 있는가. 중국 해군은 이 해역에서 대규모 실탄사격 및 대함미사일 발사훈련을 실시하거나, 소위 제1도련 및 제2도련으로 진출하는 기동훈련을 실시하면서, 해군력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

〈표 3〉은 최근 중국 해군이 동중국해에서 행한 해군훈련 양상을, 공개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중국 북해, 동해, 남해 함대가 단

〈표 3〉 동중국해 해역에서 행한 중국 해군 최근 훈련 현황⁴⁸⁾

일시	참가부대	훈련 내용
2010.7	동해함대	절강성 연해에서 실탄 사격훈련, 대함탄도미사일 훈련
2010.7	남해함대, 동해함대, 북해함대	남해함대 훈련에 북해 및 동해함대 합류, 합동실탄훈련
2010.8	-	동중국해, 실탄사격훈련
2010.9	-	서해해역, 실탄사격훈련
2010.11	100여척 이상 함정, 잠수함, 해병대	동중국해 대규모 훈련
2011.6	구축함 3척, 프리게이트함 4척, 정보수집함 1척, 보급함 1척	오키나와 남서방면 450 km 해상, 사격훈련
2012.4	중국 북해함대 러시아 태평양함대 6척	서해에서 연합훈련 실시

45) 해상보안청 전력의 증강 현황에 대해서는 Richard J. Samuels, “New Fighting Power! : Japan's growing Maritime Capabilities and East Asian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Vol.32, No.3 (Winter 2007) 참조.

46) 각의 결정, 『해양基本計劃』2008년 3월.

47) 日本經濟団体連合会, 「海洋立国への成長基盤の構築に向けた提言」(2010.4.20.).

48) 이 표의 작성에는 防衛省防衛研究所 編『中國安全保障レポート』(東京:防衛研究所, 2011), pp.15-16, 防衛省 防衛研究所 編, 『中國安全保障レポート2011』(防衛省防衛研究所, 2012), p. 11, 『朝日新聞』2010년 7월3일 기사, Michael Wines, “China Stages Naval Exercises Where Tensions With Its Neighbors Have Grown” *New York Times*, November 4, 2010, 『조선일보』 2012년 4월18일 기사 등을 종합적으로 참조.

독으로나 혹은 합동으로 동중국해 혹은 서해 해역에서 대함 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을 실시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러시아 해군과도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이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대함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항모세력에 대한 소위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의 수행의 일환으로 보인다.

〈표 4〉 중국 해군의 서태평양상 기동항행훈련⁴⁹⁾

일시	함대 규모	항행기동
2008.10	구축함 4척	츠가루 해협 통과, 일본열도 선회
2008.11	구축함 4척	오키나와-미야코시마 사이 통과, 태평양 항행
2008.12	해양조사선 2척	센가쿠 해역 항행
2009.6.25	미사일 구축함 등 5척	오키나와 서남방면 170 km 해상에서 북서진, 태평양 방면 기동
2010.3-4	북해함대 소속 6척	오키나와-미야코시마 사이 통과
2010.4	동해함대 구축함 2척, 프리게이트 3척, 잠수함 2척, 보급함 1척	오키나와-미야코시마 사이 해역 통과
2010.7	구축함 1척, 프리게이트함 1척	동중국해에서 태평양 방면 항행
2011.6.8	함선 11척,	오키나와-미야코시마 사이 통과, 태평양 방면 항행
2011.11.22-11.23	미사일 구축함 4척, 보급함 1척, 정보수집함 1척	오키나와-미야코시마 사이 공해 통과, 태평양 방면 항행

〈표 4〉는 중국 해군이 동중국해 해역을 벗어나 서태평양상으로 기동훈련하는 양상을, 자료들을 종합하여, 나타낸 표이다. 〈표4〉를 보면 중국 해군은 북해, 동해 함대 등 각 함대 소속 함정들이 미사일구축함, 잠수함, 보급함 등으로 함대를 편성하여, 주로 오키나와와 미야코시마 사이의 공해를 통과하여 서태평양상의 해역으로 기동하여 함상 사격 훈련 등을 실시한 뒤, 같은 루트를 통해 귀항하는 훈련의 빈도를 늘려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항행 궤적은 중국 해군이 소위 제1도련선을 통과해, 제2도련선의 해역으로 진출하는 양상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49) 〈표 4〉의 작성에는 防衛省防衛研究所 編『中國安全保障レポート』(東京:防衛研究所,2011), p.14, 防衛省 防衛研究所 編, 『中國安全保障レポート2011』(防衛省防衛研究所,2012),p.11, 『朝雲新聞』2009년 7월2일 기사, 『朝日新聞』2010년 6월19일, 2011년 6월9일, 6월24일, 11월 24일 기사, 『중앙일보』2011년 6월11일 기사 등을 참조.

일본은 이러한 중국 해군의 증강과 훈련 양상을 이 해역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국가이익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수상은 2012년 5월13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원자바오 수상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센카쿠를 포함한 해양에서 중국 활동이 활발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 일본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위기감을 표현하기도 하였다.⁵⁰⁾ 일본 정책연구대학원 대학의 미치시타 나루시게 교수는 중국 해군력 증강과 활동이 냉전기 구 소련이 취했던 해양통제 및 해양거부와 유사한 반접근(anti-access) 전략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그 목적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및 서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시키고, 일본의 영토나 자원 관할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⁵¹⁾

일본은 이러한 중국 해군활동 확대에 위기인식을 가지면서, 자체적으로는 “동적 방위력”의 증강에 의해서, 대외적으로는 동맹국인 미국은 물론, 호주 및 인도와의 연합해군훈련 확대를 통해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 2010년 12월, 미국과 일본은 오키나와와 규슈 등지에서 해상자위대 함정 40여척, 항공기 250여대, 항모 조지워싱턴을 포함한 미국 함선 20여척, 항공기 150대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포레스트 라이트(Forest Light) 연합훈련을 실시하였다.⁵²⁾ 미일간 연합훈련은 1986년 이래 10회째 실시되어 온 것이지만, 특히 2010년 훈련은 태평양 도서지역이 제3국으로부터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는 전제 하에 기지방어, 근접 항공지원, 해양방어 등이 실시되었다. 미일 양국은 2012년 1월 말과 2월 초에 걸쳐서도 공동 지휘소 훈련 “야마사쿠라”를 실시하였다. 이 훈련은 가상 적군이 일본에 상륙했다는 전제 하에 미일이 공동대응하여 격퇴한다는 시나리오에 의해서 실시되었다.⁵³⁾ 이같이 최근 실시된 미일간 연합훈련은 제3국이 탄도미사일 공격을 실시하거나, 일본 본토에 상륙했다는 전제 상황을 전제하고 실전처럼 진행되는 특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

일본은 미국을 포함한 인도 및 호주와의 연합해군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2009년 4월26일부터 5월3일에 걸쳐 일본은 미국 및 인도 해군과 함정 10여척이 참가한 가운데 나가사키 및 사세보 연안을 무대로 “말라바 09” 해상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훈련은 통상 인도양에서 실시되어 왔으나, 처음으로 동중국해와 인접

50) 『朝日新聞』2012년 5월14일.

51) Michishita Narushige, “The Future of Sino-Japanese Competition at Sea” (2012.3.23.).

52) “Japan-U.S. military drill starts...” *China Military*, Decemebr 7, 2010.

53) 『朝日新聞』2012년 2월20일 기사 참조.

한 해역에서 실시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⁵⁴⁾ 2012년 6월에는 일본, 미국, 호주의 3국 연합해군훈련이 일본 서남방 규슈 해상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이들 세나라는 2007년 이후 연합 해군훈련을 실시해 왔으나, 점차 동중국해 해상으로 훈련장소를 옮기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과 일본이 동중국해 해상에서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군사훈련과 항해기동을 활발하게 실시하면서, 양국 간에는 우발적인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양국 간에는 동중국해 해역에서의 해군 활동과 관련하여 수차례의 분쟁을 겪은 바 있다. 2010년 9월7일, 센카쿠 제도 해상에서 중국 트롤러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일본측은 즉각 중국인 선장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하였으나, 중국은 이에 대해 주중 일본 대사를 외무성에 소환하고, 이어 중국산 희토류(rare earth)의 대일 금수를 결정하는 보복조치를 취하였다.⁵⁵⁾ 2011년 4월에는 중국 항공기가 해상자위대 호위함에 90미터까지 근접비행하여 일본 방위성이 중국측에 대해 항의하고, 반면 같은 시기에 동중국해에서 항행하던 중국 함정에 대해 해상자위대 헬기와 P-3C 초계기가 근거리 비행을 했다고 하여 중국측이 일본에 대해 항의하는 사태도 벌어졌다.⁵⁶⁾ 이같이 동중국해에서 상호 해군력의 증강 및 활동 확대, 영유권 및 해저자원개발을 둘러싼 경쟁에 따라 중국과 일본, 그리고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도 관여할 수 있는 해양분쟁의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남중국해 해양분쟁 가능성

남중국해는 중국 남부, 타이완 이남, 필리핀 이서, 동남아 국가들과 면한 해역이다. 남중국해에는 서사군도, 남사군도를 포함해 200개 이상의 작은 섬과 암초들이 점재(點在)해 있고, 천연자원도 상당수 부존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 해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주요 도서들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 간에 의견대립과 갈등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은 서사군도 및 남사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 해역에 수시

54) 『朝雲新聞』2009년 4월30일 참조.

55) Ian Johnson, "China and Japan Bristle Over Disputed Chain of Island"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9, 2010.

56) 『朝日新聞』2011년 4월2일 및 6월17일 기사 참조.

로 순시선을 순항시키면서 역내 국가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⁵⁷⁾ 중국은 남중국해 해역이 중국의 핵심이익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⁵⁸⁾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에 의하면, 중국의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2011년에 수립한 남중국해 전략에서 이 해역의 해양수송로 및 군함이 항행 가능한 안전수역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천연가스와 석유자원을 개발하며, 나아가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시켜 동남아 국가들의 저항의식을 상실케하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⁵⁹⁾ 나아가 중국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미얀마 등에 항구를 건설해 주고, 정치적 및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여,⁶⁰⁾ 중동지역에서 이어지는 석유 수송로를 보호하고, 동시에 인도양 해역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포석을 짜고 있다.

한편 남중국해에서 주요 도서들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대해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들은 반발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이에 대응하려고 한다. 필리핀은 2009년 3월에 영해기선법을 제정하면서, 중국의 종전 주장을 무시하고 남사군도 일부를 자국령에 포함시키는 조치를 단행했다.⁶¹⁾ 나아가 필리핀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태세를 취하면서 중국의 압박에 대응하고 있다. 1992년 수빅만의 미군기지가 철수한 이래 필리핀에는 1998년 체결된 VFA(Visiting Force Agreement)에 의해 미국과의 연합군사훈련을 부분적으로 재개해 왔으나, 2012년 1월26일, 양국 간의 외교 및 국방차관급 회의를 통해 연합훈련 회수를 대폭 늘리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4월, 미국과 필리핀은 남중국해의 필리핀 유전 방어를 상정한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⁶²⁾

싱가포르 리관유 전 수상은 2009년 워싱턴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 계속 존재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냉전시기에 미국과 전쟁을 치룬 바 있던 베트남은 2011년 7월15일, 다낭 해상에서 연합해군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⁶³⁾

57) 예컨대 2009년 3월10일, 해남도의 산야기지를 출항한 중국측 순시선은 10여일에 걸쳐 서사군도, 남사군도를 항행한 후에 산야기지로 복귀한 바 있다. 『朝日新聞』2009년 3월28일.

58) 2010년 3월, 중국을 방문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제프리 베이더(Jeffrey Bader)와 제임스 스타인버그(James Steinberg)에 대해 중국 관리들이 이같은 점을 거듭 역설하였다. Edward Wong, "Chinese Military Seeks to Expand Its Naval Power: A Rapid Buildup is Seen", *The New York Times* April 24, 2010에서 재인용.

59) 『朝日新聞』2012년 1월25일.

60) Robert D.Kaplan, "Obama Takes Asia by Sea" *The New York Times*, November 12, 2010 및 『조선일보』2011년 5월24일 참조.

61) 『朝日新聞』2009년 3월28일.

62) 『朝日新聞』2012년 1월28일 및 4월17일 기사 참조.

이 지역 국가들의 대중 경계감 고조에 대응하여 미국도 전례없이 강한 어조로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협력과 지원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2010년 7월23일, 클린턴 국무장관은 베트남에서 개최된 동남아국가포럼에서 연설하면서, 중국과 주변 국가들 간에 전개되는 남중국해의 영토분쟁에 미국이 개입할 수 있으며, 영토분쟁을 중재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결부된다고 밝혔다.⁶⁴⁾ 오바마 대통령도 2010년 9월24일, 동남아국가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⁶⁵⁾, 2011년 11월27일, 오스트레일리아의 의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서도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국가이며, 이 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감소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⁶⁶⁾ 실제 미국은 태국과는 코브라 골드 훈련을, 필리핀과는 바리카탄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⁶⁷⁾, 2011년 7월9일에는 남중국해에 속한 브루나이 해상에서 일본 및 오스트레일리아 해군과 연합해군훈련을 실시하면서, 동남아 국가들을 지원하는 태세를 과시하기도 하였다.⁶⁸⁾

남중국해 해역에서도 중국의 군사활동이 증대되고, 이에 대응하기라도 하듯 동남아 국가들과 이를 뒷받침하는 미국의 해군력 투사 활동이 늘어나자, 양측 간에는 우발적인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9년 3월, 남중국해의 하이난섬 인근 공해상에서 미국 정보수집함 임팩터블호를 중국 선박 5척이 저지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이지스함과 핵잠수함을 동 해역에 파견하였고, 중국도 어로순시선을 증파하였다.⁶⁹⁾ 이후에도 해양에서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정면 충돌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2011년 3월2일, 남중국해의 리도암초 지역에서 자원조사를 실시하던 필리핀측 선박이 중국 함정 2척에게 정선을 명령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필리핀측에서 초계기가 파견되어 중국

63) Edward Wong, 앞의 기사 및 『朝日新聞』2011년 7월16일.

64) 이 연설에 대해 중국측은 미국 행위가 지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Andrew Jacobs, "Stay Out of Island Dispute, Chinese Warn the U.S." *The New York Times*, July 27, 2010.

65) Edward Wong, "China's Disputes in Asia Buttress Influence of U.S: Beijing's Neighbors See Need for Military Ally and Intermediary"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23, 2010.

66) "Obama's Pacific power play: 'We are here to stay'"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November 18, 2011.

67) 코브라 골드 훈련에는 2010년 이후 한국의 해군과 해병대도 참가하고 있다. 『국방일보』2011년 2월14일, 2011년 4월에 실시된 바리카탄 훈련에는 주한미군 500명이 처음 참가하였다. 『朝日新聞』2011년 4월5일.

68) 3국 연합해군훈련에 대해서는 『朝日新聞』2011년 7월8일 참조.

69) 『중앙일보』2009년 3월28일 참조.

함선에게 재차 퇴거를 압박하는 사태로 발전한 바 있다.⁷⁰⁾ 2012년 4월8일에는 필리핀의 정찰기들이 루손 서쪽 124 마일 해상에 위치한 스카브로 암초에서 중국 어선 8척이 조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퇴거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 순시선이 가세하여 불응하자, 양측이 장기간 대치하는 사태로 악화되었다.⁷¹⁾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남중국해에서도 국가간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 획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일부 도서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중국 대 동남아 국가들,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을 지원하는 미국과의 사이에 언제라도 해양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IV. 동아시아 해양 협력과 신뢰구축을 위한 한국 해군의 과제

동아시아 해역에서 전개되는 주요 국가들의 적극적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와 도서영유권을 둘러싼 각국간 잠재적 분쟁의 가능성은 한국의 대외안보환경에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는 한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해양수송로가 연결된 해역이다. 이 해역에서의 무력분쟁 상태는 한국의 무역, 나아가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언제라도 협력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우방들이다. 이들 국가간에 해양분쟁이 촉발된다면,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을 위해 중대한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외교와 군사적 수단을 사용해, 관련 국가간 해양분쟁의 리스크를 줄이고, 동아시아 해양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주요 국가들간 양자적 해양협력, 그리고 다자간 해양협력이 동아시아 지역내 신뢰증진과 해양협력 구축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고, 해군도 이러한 과제 수행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70) 『朝日新聞』2011년 5월23일 기사 참조.

71) Floyd Whaley, "In standoff at sea, a bid for diplomacy"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12, 2012.

1. 양자간 해양협력의 모색

가. 미·중간, 일·중간 해양협력의 현황

이미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은 동아시아의 잠재적 군사분쟁, 해양분쟁을 회피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양자간 레벨에서 신뢰구축을 도모하면서 해양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시도를 경주하고 있다.

우선 미국과 중국 간에는 정상회담, 장관급 회담, 그리고 군사실무자 회담 등의 다양한 양자 대화채널을 가동하면서 양국 간의 신뢰구축과 협력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모색되고 있다. 2011년 1월19일,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이 가운데 군사 및 민간분야 교류의 확대가 포함되었다.⁷²⁾

미중 간에는 정상회담 이외에 양국 국방장관 회담, 국방차관급 회담, 그리고 차관보급 실무회담 등도 빈번하게 개최되면서, 이 속에서 해양안보협력 문제도 논의되고 있다. 예컨대 2009년 2월27일, 미국측의 데이비드 세드니(David Sedney) 동아시아 담당 국방차관보와 중국측의 국방성 외사관공실 대표와 가진 양국 군사대화에서는 소말리아 해상에서 해적퇴치 활동을 전개하게 될 양국 해군의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⁷³⁾ 1997년 이래 양국의 국방차관급이 연례적으로 참가해 온 연례 국방협의회 (defense consultation)에서도 해양안보 이슈가 다루어졌다. 예컨대 2010년 12월9일, 중국측 마샤오티안 부총참모장이 방미하여 미국측 플로노이 국방차관과 가진 국방협의회에서 양국간 해양안보 이슈가 다루어진 바 있다.⁷⁴⁾

보다 실질적인 양국간 해군협력 방안은 2011년 7월, 미국측의 뮐렌 합참의장과 중국측의 천빙더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간에 가진 군사회담에서 논의되었다. 동년 5월에도 천빙더 총참모장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회담을 가진 바 있던 양자는, 이 회담에서 동년 중에 소말리아 해역에서 양국 해군이 공동으로 해적대처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고, 2012년도에도 재해구난 등의 인도적 목적 하에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우발적 해상충돌에 대비한 양국간 핫라

72) 『조선일보』2011년 1월21일.

73) Michael Wines, "U.S. praises military talks with China"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rch 2, 2009.

74) Xinhua 2010년 12월9일 참조.

인 구축도 합의되었다.⁷⁵⁾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미중 양국은 2012년 가을에 최초의 양국간 해양안보대화를 개최할 계획도 갖고 있다.⁷⁶⁾

일본과 중국 간에도 다양한 층위에 걸친 양자간 안보 및 방위대화 채널을 갖고 있다. 우선 일중 정상 레벨에서는 2007년 4월, 원자바오 수상이 방일했을 당시, 일본측 아베 수상과 합의한 몇가지 사항이 양국 안보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당시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호혜관계”로 규정지으면서, 2003년 이래 양국간 갈등의 쟁점이었던 동중국해 가스전 문제에 대해 공동개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향후에도 양국 국방당국 간에 연락메카니즘(상호 핫라인)을 설치하자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이다.⁷⁷⁾ 2008년 5월,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방일했을 때에도, 일본측 후쿠다 수장과 “양국간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여, 양국이 유엔평화유지활동 및 재해구난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을 선언하였다.⁷⁸⁾

양국 국방장관급 회담에서도 비전통적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 양국간 핫라인 개설을 위한 준비, 주요 부대 지휘관 및 합정의 상호 방문 등이 계속 논의 되어 왔다. 그 결과를 집대성한 것이 2009년 11월27일, 양국 국방장관 간에 합의된 양국간 방위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사항이다. 이날 양국 장관은 ①양국 방위대신과 국방부장의 상호방문 계속 실시, ②인민해방군 총참모장, 부총참모장, 각군 사령관과 막료장 상호 방문의 계속 실시, ③일중 방위당국간 협의의 매년 개최, ④육상자위대 방면대와 인민해방군 대군구와의 교류 개시, ⑤합정 상호방문의 계속 실시, ⑥해상수색구난 공동훈련 실시, 재해구원, 유엔평화유지활동 등 비전통적 안보분야에서 경험 공유 및 협력 위한 의견교환 실시, ⑦일중 방위당국간 해상연락 메카니즘을 확립하기 위한 실무회의 개최, ⑧막료대화 및 각 부문간 교류 실시, ⑨다국간 안전보장 협의체에 있어 중일간 협력 강화 등을 합의한 것이다.⁷⁹⁾

이외에도 중일 양국은 국방차관급 협의, 국방실무자간 협의 등을 병행하여 가동하면서, 해상연락 핫라인 체계의 구축, 양국 군지휘관 및 합정의 상호 방문과

75) Michael Wines, “Warm words and hurdles at U.S. and China talk”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ly 12, 2011. 천빙더 총참모장의 5월 방미에 대한 기사는 『朝日新聞』 2011년 6월5일 참조.

76) 미중간 해양안보대화 개최는 2012년 5월4일 종료된 미중간 전략경제대화에서 합의되었다. 『朝日新聞』 2012년 5월5일 참조.

77) 『중앙일보』 2007년 4월 12일 기사 및 防衛省防衛研究所 編 『中國安全保障レポート』(東京:防衛研究所, 2011), p.26 참조.

78) 『朝日新聞』 2008년 5월9일 참조.

79) 防衛省防衛研究所 編 『中國安全保障レポート』(東京:防衛研究所, 2011), p.28.

같은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고 있다. 특히 해양협력문제와 관련하여 2012년 5월 16일, 중국 항조우에서 양국이 제1회 고급레벨의 해양협의를 개최한 사실이 주목된다. 이 회의에는 중국측에서 외교부, 국방부, 국가해양국 고위 관료들이, 일본측에서도 방위성, 해상보안청이 관리들이 참가하여, 양국간 위기관리 메카니즘 구축에 대해 협의하였다고 한다.⁸⁰⁾ 향후 이 회의체가 일본과 중국, 양국의 해양안보협력을 실질적으로 논의해 가는 주요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한국 해군의 양자간 해양협력 과제

우리도 동맹국인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 및 중국과 활발한 양자접촉을 통해 전체적인 안보협력과 해양협력을 추진해 가고 있다. 일본과는 양국 정상회담은 물론, 국방장관 레벨, 국방차관급 전략대화, 그리고 실무자급 국방대화 등을 빈번하게 가지면서 양국간 신뢰증진과 안보협력을 도모해 가고 있다. 2009년 4월23일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양국간 방위교류에 관한 의도표명서가 조인되어, 향후에도 양국간 군지도자 및 부대간 상호교류, 연구 및 교육의 교류, 유엔평화유지활동 등 국제안보분야에 관한 협력 방침 등이 확인된 바 있다.⁸¹⁾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에도 정례적인 수색 및 구조훈련이 실시되고 있고, 함정의 상호방문이 실시되기도 하였다.⁸²⁾

한중 양국 해군 간의 신뢰증진과 협력도 추진되고 있다. 2011년 7월15일, 김관진 국방장관은 량광레 중국 국방부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해공군 간에 핫라인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를 보았으며, 같은 해 11월25일에는 한국 해군의 구축함 왕건함이 중국 상하이를 방문하여 동해함대 사령부 소속 함정과 양국 연합의 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⁸³⁾

이같은 일본 및 중국과 추진되고 있는 양자간 안보협력 및 해양협력은 한반도 주변 해양질서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북한의 군사위협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케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한국 해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과 중국 간의 양자간 안보협력의 성과를 이어받아 보다 내실있는 해양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해군 지휘관 및 함정들의 상호 방문을 지속적으로 추

80) 『朝日新聞』 2012년 5월17일 참조.

81) 합의 내용은 『국방일보』 2009년 4월27일 참조.

82) 최근에는 한일 양국간 수색 및 구조훈련이 2009년 7월6일 이후, 그리고 2011년 11월12일 이후에 각각 실시된 바 있다.

83) 양국간 연합 수색구조훈련 상황은 『국방일보』 2011년 11월28일 기사 참조.

진하면서, 동시에 사관학교 및 해군대학 레벨에서의 연구 및 교육 분야 협력을 내실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해군은 일본 등에 해군 장교나 사관생도를 파견하여 방위대학이나 지휘참모대학에서 해외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우리 해군대학에서는 이미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각국에서 유학생이 파견되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⁸⁴⁾ 이같은 교육 수탁 및 파견이 중국까지도 포함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해군사관학교나 해군대학이 중심이 되어 한중일 3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주요 국가 해군사관생도나 해군 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학술세미나, 공동연구 포럼 등을 조직하는 것도 역내 해양안정 및 신뢰구축을 위해 좋은 메카니즘이 될 것이다.⁸⁵⁾ 이러한 교육 및 연구분야에서의 한중일 해군협력 메카니즘이 배태된다면, 이를 토대로 비전통적 안보분야, 이를 테면 동아시아 인근 해양에서의 3국간 공동의 수색구조 훈련 실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 다자간 해양협력의 모색

동아시아는 유럽지역에 비해 다자안보의 프레임워크(Framework)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90년대 이후 몇가지 다자간 안보협의체가 창설되기 시작하면서, 이를 통해 안보협력 및 해양협력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1993년 창설된 아세안지역포럼(ARF)은 역내 국가의 안보정책 결정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지역내 안보이슈들을 논의하는 다자간 안보대화의 장(場)으로 기능해 왔다. 특히 2009년도에는 대형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회원 국가들에 발생했다는 상황을 전제로, 회원국가들에 의한 공동의 재해구원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공동훈련이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 12개국에 참가한 가운데 필리핀에서 개최되기도 하였다.⁸⁶⁾

이 밖에 역내 국가들의 국방부 장관이나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정례적인 회의체로서는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주최하고 일본 아사히신문사가 후원하여 싱가포르에서 매년 개최되는 아시아안보회의⁸⁷⁾, ARF 회의의 일환으로

84) 국방대학교 석박사 과정에서도 일본 방위대학교 석박사 과정과의 정례적 학술교류가 추진되고 있다.

85) 일본 방위대학에서는 국제사관생도 학술회의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 다만 해군사관생도만을 대상으로 한 국제회의체는 아직 없다.

86) 『국방일보』2009년 5월4일.

87) 일명 상그리라 대화로 불리워지는 싱가포르의 아시아안보회의는 2011년부터 중국이 참가하기 시작하여, 역내의 해양안보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朝日新聞』

열리는 아시아 국방장관 회의나 국방대학교 총장회의, 일본 방위성이 주최하여 매년 개최되는 동경 디펜스포럼 등이 개최되고 있다. 88) 이 밖에 2000년대 이후 정례화된 한중일 정상회담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2010년 설치된 한중일 협력 사무국 등도 역내 해양안보를 위해 역할할 수 있는 다자간 협의체의 하나이다.

역내의 다자간 해양안보협력의 증진을 위해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이같은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우선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자간 안보협의체에 참가하는 국가정상이나 국방부 장관, 기타 국방정책 관계자들이 해양안보에 관련한 적절한 이슈를 개발하고, 이를 다자간 회의에서 의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한국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이 공통적으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하는 해적퇴치의 목적을 띄고, 각각 해군 함정들을 파견하였는데, 이 해역에서의 참가국간 정보교환과 공동 호위 등의 노력이 요청될 수 있다. 89) 한중일 협력 사무국이나, ARF 협의체는 이러한 이슈들을 논의하는 좋은 장이 될 수 있다. 2009년 중국 스촨성이나 2011년 일본 동북 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의 경우, 각국에 의한 구원대 파견이나 병원선 파견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보다 효과적인 재해구난을 위한 관련국들간의 협의가 이러한 상설적 다자협의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해군으로서는 아시아 역내의 다자간 협의체를 어떻게 활용하여 적절한 이슈를 제기할 것인지에 대한 평소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V. 맺는 말

100여년 전 한반도, 당시의 조선은 1903년에 도입한 화물선을 개조하여 군함으로 탈바꿈한 양무호 단 1척의 함선만 보유했었다. 이에 반해 일본은 1만5천톤급 미카사를 필두로 한 40여척의 함선으로 구성된 연합함대로 러시아 발틱함대를

2011년 6월6일 및 6월15일 기사 참조.

88) 2009년도에 개최된 동경디펜스포럼에서는 해적 및 해상무장강도 등 해양안보에 관련된 이슈가 다루어졌고, 논의 결과는 ARF 회의에 보고가 되었다고 한다. 동경디펜스포럼에 대해서는 防衛廳, 『防衛白書2008:平成20年版 日本の防衛』(防衛省,2008), pp.253,377 및 『朝雲新聞』, 2009년 7월23일 기사 참조.

89) 이에 관한 필자의 제언은 박영준, “소말리아서 한중일 군사협력력” 『중앙일보』, 2009년 2월4일 칼럼 참조.

쓰시마 해상에서 격파하고, 조선을 속국화하면서 동아시아의 패권국으로 발돋움했다. 결과적으로 군사력의 격차가 독립된 주권국과 망국(亡國)의 길을 가른 것이다.

당대의 개명 지식인이며 후일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역임하게 되는 박은식(朴殷植) 선생은 1907년에 쓴 글에서 조선이 국가의 권리를 상실하고, 타국의 노예가 된 원인은 “헛된 글월을 숭상하고 군사에 관한 일을 천시(虛文을 徒尙하고, 武事を 賤視)” 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⁹⁰⁾ 이 때문에 박은식 선생은 1915년에 저술한 『한국통사(韓國痛史)』에서 새로운 독립 한국은 태평양을 앞바다로 삼고, 북방대륙을 조선의 땅으로 삼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를 위해서는 해상권(海上權)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계몽하고, 항해를 힘써 장려하고, 해군대학교와 육군대학교를 세워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⁹¹⁾

그로부터 100여년이 경과한 지금, 한국의 해군력과 국가적 역량은 몰라보게 발전하였다. 박은식 선생이 꿈꾸셨듯이, 독립 이후 한국은 줄기찬 노력을 경주하여 조선기술 면에서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었고, 해양을 통한 무역대국이 되었고, 해군사관학교와 해군대학에서 정예의 해군 요원을 양성하는 국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 등의 해군력 및 국력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적극적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을 도모하는 인접 국가들에 의한 잠재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의 외교역량을 동원하여 해양협력과 신뢰구축을 도모해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해양의 안보, 해양 신뢰구축의 방법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평화적인 해양강국이 되는 길이다. 즉 북한은 물론, 중국이나 일본이 감히 넘보지 못할 해군력을 기르고, 이러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각국에 대해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의를 통해 해양항행의 자유, 평화로운 도서 영유권 분쟁의 해결, 평화로운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를 둘러싼 갈등의 해결을 제창해 나가는 것이 보다 확실한 해양 신뢰구축의 첩경이 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국력이 약한 나라의 외교적 중재, 도덕적 주장이 경청되는 사례는 그리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 평화지향적이면서 국력이 강한 나라의 주장에는 다수의 국가들이 경청하게 마련이다. 동아시아 해양협력과 신뢰구축을 보다

90) 박은식, 「文弱之弊는 必喪其國」(『西友』제10호, 1907.9), 백암 박은식 선생 전집편찬위원회 편, 『白巖朴殷植全集:제5권』(동방미디어, 2002), p.376.

91) 이호재, “1910년대 외교논쟁과 지도자의 주장” 『한국인의 국제정치관: 개항후 100년의 외교논쟁과 반성』(법문사, 1994), p.189.

강력하게 발신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해군력 증강이 국민적 성원 속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민교, 「2010년대 한국 해양정책의 과제와 전망」, EAI 국가안보패널보고서: 2010년대 한국외교 10대 과제 (EAI, 2012년 3월).
- 김재엽, 「미국의 공해전투(Air-Sea Battle):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전략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2년 3월)
- 김종형, 「대안적 분석모형에 의한 탈냉전 이후 동북아 재래식 전력지수 평가:1991-2010 해공군력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군사전략전공 석사학위 논문, 2011)
- 박영준, “소말리아서 한중일 군사협력율” 『중앙일보』 2009년 2월4일.
- 백암 박은식 선생 전집편찬위원회 편, 『白巖朴殷植全集:제5권』(동방미디어, 2002)
- 이재훈, 『소련군사정책, 1917-1991』(국방군사연구소, 1997)
- 이호재, “1910년대 외교논쟁과 지도자의 주장” 『한국인의 국제정치관: 개항후 100년의 외교논쟁과 반성』(법문사, 1994)
- Carvajal, Doreen, “French Deal To Sell Ships To Russians Is Criticized” *New York Times*, December, 29, 2010.
- Dower, John W., “Occupied Japan and the American Lake, 1945-1950” Edward Friedman and Mark Selden, *America's Asia: Dissenting Essays on Asian-American Relations* (New York: Random House, 1969),
- Fedyszyn Thomas R., “Renaissance of the Russian Navy?” U.S. Naval Institute (2012, 2, 29.),
- Friedman, Hal M., *Governing the American Lake: The U.S. Defense and Administration of the Pacific, 1945-1947* (East Lansing: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2007).
- Hughes, Christopher W., *Japan's Remilitarization* (London: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09)
- Jacobs, Andrew, “Stay Out of Island Dispute, Chinese Warn the U.S.” *The New York Times*, July 27, 2010.
- Johnson, Ian, “China and Japan Bristle Over Disputed Chain of Island”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9, 2010.
- Kaplan, Robert D., “Obama Takes Asia by Sea” *The New York Times*, November 12, 2010

- Kaplan, Robert D., "Lost in the Pacific: Asia Rising"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September 22-26, 2007.
- Koda, Yoji, "Japanese Perspective on PRC's rise as a Naval Power : Role of the USA, Japan and the ROK for our future" (2011년 7월 6일 한국전략문제연구소(KRIS) 주최 국제세미나의 발표문.
- Koda, Yoji, "The Emerging Republic of Korea Navy: A Japanese Perspective", *Naval War College Review*, vol.63, no.2 (Spring 2010).
- Li, Nan, "China's Evolving Naval Strategy" (2010.11.19. 보스턴 대학 세미나 발표문)
- Lind, Jennifer M. , "Pacifism or Passing the Buck?: Testing Theories of Japanese Security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 Vol.29, No.1 (Summer 2004)
- Modelski, George, *Long Cycles in World Politics* (Macmillan Press, 1987)
- Narushige, Michishita, "The Future of Sino-Japanese Competition at Sea" (2012.3.23.).
(<http://nippon.com/en/in-depth/a00504>)
-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1: Annual Report to Congress* (2011)
- Samuels, Richard J., "New Fighting Power!: Japan's growing Maritime Capabilities and East Asian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Vol.32, No.3 (Winter 2007)
- Shambaugh, David, *Modernizing China's Military: Progress, Problems, and Prospects* (Berkeley: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
- Whaley, Floyd, "In standoff at sea, a bid for diplomacy"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12, 2012.
- Wines, Michael, "Warm words and hurdles at U.S. and China talk"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ly 12, 2011.
- Wines, Michael, "U.S. praises military talks with China"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rch 2, 2009.
- Wines, Michael, "China Stages Naval Exercises Where Tensions With Its Neighbors Have Grown" *New York Times*, November 4, 2010,
- Wong, Edward, "China's Disputes in Asia Buttress Influence of U.S: Beijing's Neighbors See Need for Military Ally and Intermediary"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23, 2010.
- Wong, Edward, "Chinese Military Seeks to Expand Its Naval Power: A Rapid Buildup is Seen", *The New York Times* April 24, 2010

防衛省防衛研究所 編『中國安全保障レポート』(東京:防衛研究所, 2011)

防衛省 防衛研究所 編, 『中國安全保障レポート2011』(防衛省防衛研究所, 2012)

防衛廳, 『防衛白書2008:平成20年版 日本の防衛』(防衛省, 2008)

日本經濟団体連合会 「海洋立国への成長基盤の構築に向けた提言」(2010.4.20.)

『국방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China Military, Xinhua,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The New York Times, 『朝雲新聞』, 『朝日新聞』 등

Abstract

ROK Navy's Role for a Confidence Building and Mutual Cooperation on the East Asian Sea

Park Young-June*

We are witnessing the growing maritime tension on the East Asian sea these days. Each naval powers in the region are competing each other to acquire more advanced naval capabilities.

Based upon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China is actively beefing up its naval capabilities and expand its boundary of naval activities all over the East Asian region. Chinese Navy already unveiled its expansive naval strategy replacing the traditional concept of 'Near-Sea Defense' with the new concept of 'Far-Sea Defense' strategy.

In response to potential rival's naval build up, the U.S. is redeploying its naval forces focusing on the Asia-Pacific region. The U.S. enhances its joint naval exercises with the countries in the region, such as Japan, India, Australia and so on. In addition, Washington is devising new naval strategy under the concept of 'Air-Sea Battle' to deter Peking's so-called 'Anti-Access/ Area Denial(A2AD)' strategy.

As a close ally of the U.S., Japan also disclosed its clear intention to strengthen the Maritime Self Defense Force(MSDF)'s capabilities by introducing the new concept of 'Dynamic Defense Force' in 2011. Under the new concept, JMSDF is pursuing the additional acquisition of submarines, quasi-aircraft carriers, Aegis-equipped destroyers, etc.

Under the new president's strong leadership, Russia is also invigorating the naval build-up. Especially, Russia is fortifying the

* Professor,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acific Fleet's naval assets by deploying new-type of naval ships such as the Mistral which was imported from France.

In the midst of competitive naval build-up among the major naval powers in the region, we are observing the growing maritime conflicts on the East China Sea as well as South China Sea. Those naval conflicts can pose severe threats to our national interests. Maritime conflicts on the East or South China Sea can imperil our sea lanes which will be indispensable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Neighboring countries' maritime conflicts also will cast an uncertainty on the path to mobilize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resolve the North Korean issues.

We should contribute to ease the maritime tension in the region by various ways. First, we should actively galvanize the bilateral maritime dialogue among the major naval powers in the region. Second, we also should take the lead to form a multilateral maritime cooperation mechanism in the region. Above all, we should set the aim to be a peaceful maritime power who can contribute to a building of stable maritime order in the region with a considerable naval power.